



화장문화의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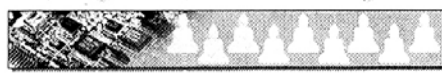
현재 세계적인 과학·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인으로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때문에 '형질전환 복제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2001년 3월 세계 최초로 '형광유전자(GFP)'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복제돼지가 탄생시켰다. 한국에서도 지난 8월 5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형질전환 복제돼지 1마리를 출산하는데 성공했으나, 약 16시간만에 폐사했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록 생존에는 실패했으나 형질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질전환 돼지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이때 고인(故人)의 시신 처리 문제는 가족 친지들(우리 모두 해당

에게 매우 중요한 인간사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몇몇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이후 요즈음 화장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장률은 33.7%로 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3%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98.4%, 태국의 90%, 홍콩의 78.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한국토지행정학회가 2월20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187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부모님의 경우는 화장을 선호했으나, 자신의 장례 방식으로는 화장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2.3%라고 한다. 화장 선호자들은 국토면적의 협소, 묘지 확보의 어려움, 묘지관리비의 어려움 등을, 매장 선호자들은 전통적인 관습, 화장 시 두 번 죽는 느낌 등을 선택의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한편 현재 남한 면적은 9만9600km<sup>2</sup>이며 이 가운데 1%

그림·문병성

###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정도인 998km<sup>2</sup>가 묘지로 덮여 있다. 묘지면적이 서울 시 면적의 배를 넘었고, 분묘수로는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100만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계연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가 버려진 무연고 분묘라고 한다. 아마 필자의 견해로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묘에 문히게 되면 '매장'을 통

특히 문제의 핵심은 자신은 화장을 선호하지만 부모님은 매장을 하겠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즉 화장을 선호하는 자신이 부모가 됐을 경우, 그 자식들이 또 자신의 부모는 매장을 하겠다고 할 경우 매장의 연결고리는 끊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일찍이 '매장'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가톨릭 신자이신 부모님께서 필자에게 친구 분들이 어디에 묘 자리를

### 납골묘 점증...매장 대체 과도적 제도 '화장후 산개' 불교식전통 도입 서둘러

해 조상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기던 성묘 문화는 더욱더 변질될 것이리라 본다. 이제 불교계에서는 국민들의 현재의 정서와 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화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매장' 문화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일깨우며, 불교의 전통적인 '화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 판단된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필자(불교)는 압력(?)의 뜻으로 새겨들으면서도 이에 응대하지 않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부모님(현재 부친 83세, 모친 78세)께 조금씩 '화장'의 장점을 이해시켜드려 왔었다. 마침 몇 해전 선경그룹의 최준현 회장의 '화장' 기사와 경기도 장흥의 홍수로 인한 '분묘' 2,000여기의 소실'에 관한 기사는 부모님의 마음을 '화장'으로 정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뒷 불어 필자는 사실 납골묘 제도도 '매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과도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나, 자연환경을 적지 않게 훼손하며 납골당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화장' 후 산개(散開)하는 본래의 불교식 전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요즈음은 아내에게 내가 언제 죽더라도 반드시 '화장'을 한 다음, 즉시 재를 뿌리라는 유언을 틈만 나면 하고 있다.

끝으로 죽음과 관련하여 '무문관' 제47칙에 도솔종일(兜率終日: 1044~1091) 선사가 설한 '도솔삼관(兜率三關)'이란 화두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을 하는 것은 단지 견성을 하기 위함이니, 지금 그대의 성(性)은 어디에 있는가? 자성(自性)에 눈을 뜨면 곧 생사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것이니, 죽을 때 어떻게 생사에서 벗어날 것인가? 생사를 해탈하면 곧 갈 곳을 알 것이니, 몸종이(四大) 오늘날로 하면 90여종의 원소가 흩어질 때 그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삼관이란 것은 하나 따지자 보면 첫 번째 관문인 견성만 해결하면 나머지 관문은 자명하다. 자! 여러분! 이번 무더운 여름 동안 수행회를 다녀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기쁜 수행력을 바탕으로 48세란 매우 짧은 생을 살았던 종일 선사의 이 화두를 세밀히 살펴, '죽음'을 돌파하며 올바른 '화장'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보시길 않겠는가!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ypark@ccs.sogang.ac.kr



### 거듭되는 총리서리 자질시비

#### 지도자의 자격

최근 총리서리에 임명됐던 장상 씨는 부동산 투기와 주식의 이중국채 등으로 총리인준을 거부당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결과였다.

이번에는 장대한 총리서리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지명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소유부동산으로 인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중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니얼 퍼거슨 교수는 부도덕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갈취하는 CEO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 계층 1%가 국부의 38%를 차지하는 등 부도덕한 CEO와 개인투자자간 신계급투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부도덕한 방법 또는 불로소득으로 갑작스런 부를 쌓은 사람을 '졸부'라 불렀다. 부에 맞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마저 졸부와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99%의 무력감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빌 따름이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건자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돌아오는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 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정직과 의를 위해 청백하며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꿈같고 환상 같은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바로 죽음으로 돌아간다. 해탈하려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무기력하게 습관을 따르며 쾌락만을 쫓지는 말라. 시간은 순간 순간 덧없이 흘러가며, 굶게는 지·수·화·풍에, 가늘게는 생·주·이·멸의 4가지 모양에 압박받고 있다. 바로 지금 4종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에 토포 받지 않도록 하라. 무엇이 4종의 모양 없는 경계인가?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의심이 땅이 되어 가로막고,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좋아함이 불이 되어 빠뜨리며,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성냄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기쁨이 바람이 되어 휘돌아친다. 만약 이와 같이 분별해낼 수 있다면, 경계에게 굴복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뜯 수 있어서, 동쪽에서 솟았다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 북쪽으로 가라앉으며, 가운데에서 솟았다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닌다고 땅을 밟



처럼 밟고 다닌다. 왜 이러한가? 지·수·화·풍의 4대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은, 항상 안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23

#### 환상이 실상이다

은 그저 이것 하나일 뿐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에 속아서 다양한 의식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진실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 것도 없다. 온갖 다양한 모습이 모습 없는 이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

### 항상 끊임없이 불안정되게 변화

없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항상 안정되어 불변하는 것을 가리켜 실재나 실상이니 도나 법이니 진리니 유일자니 창조주니 본래면목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본지 풍광이니 부처니 조사니 하는 온갖 이

은 다른 무엇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제각각 다르지만 그 실속을 알고 보면 바로 불변하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이 온갖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므로 다양함은 곧 다양하지 않음이며, 있음이 곧 없음이 없음이 곧 있음이고, 모두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모두이며, 변화가 곧 불변이 불변이 곧 변화이고, 생사가 곧 불생불사요 불생불사가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방문객이 지켜야 할 예절 Manners to be observed by visitors

Temples are places where monks and lay people live and practice. When we visit temple, there are a few points of etiquette which should be observed. 사찰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거주하며 수행을 하는 곳이다. 사찰을 방문했을 때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예절이 있다.

1. In temple neat clothes and appearance are required and do not run, but walk quietly.
  2. If you want to stay overnight in temples you must get permission from the monk who is in charge of the temple office.
  3. Do not take pictures inside the Buddha Hall without permission.
- 1 사찰에서는 정갈한 옷차림과 몸가짐이 필요하고, 뛰지 말고 조용히 걸어야 한다.  
2 사찰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찰 업무를 맡고 있는 스님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3. 법당 안에서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 전국 육임(六任)강의 안내

오행하는 사람이라면 을·기·임(乙·奇·壬)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天文(천문)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宗」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운이나, 주역이나, 하학이나 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만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道)를 이룬다고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 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선거·구체·취직·승진·매매·입신·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들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                              |                              |
|------------------------------|------------------------------|
| 육임학당 '효사숙' 제3기 02-998-8683   |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011-729-6011  |
| 육임학당 '일경숙' 제1기 02-2203-4805  | 육임학당 '청주숙' 제1기 011-492-2376  |
| 육임학당 '복경숙' 제1기 02-3446-4118  | 육임학당 '광주숙' 제1기 011-9606-7090 |
| 육임학당 '부산숙' 제1기 011-883-8347  | 육임학당 '원주숙' 제1기 017-377-7005  |
| 육임학당 '대구숙' 제1기 016-580-6654  | 육임학당 '대전숙' 제1기 016-445-4580  |
| 육임학당 '전주숙' 제1기 011-650-8835  | 육임학당 '시흥숙' 제1기 011-326-8374  |
| 육임학당 '수원숙' 제1기 011-9189-9399 | 육임학당 '제주숙' 제1기 064-743-3703  |

- 개강: 2002년 9월 6일 금요일(효사숙 기준)
- 시간: 매주 1회 4시간(각 학당별로 일시가 정해짐) 13주 52시간
-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 비용: 일백오십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카드결제 됨.

## 한국육임학회 육임학당 효사숙

- 할인전문천역자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28개) W900,000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